

# “작가는 특정한 말 하나 가슴에 품고 살지요”

광주일곡도서관서 ‘삶과 글쓰기’ 주제 강연 손흥규 작가

“작가는 누구나 특정한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지요. 한 단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삶이며, 우리 인생은 어쩌면 끝없이 사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손흥규 작가는 소설가의 삶과 소설가의 언어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그에게 특정한 그 말은 무엇일까. 취재를 하기 전 기자는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가 꺼낸 말은 바로 ‘아집잡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는 뜻을 지닌 말로 전라도 방언이다.

최근 광주일곡도서관에서 지난해 이상문학상 수상자인 손흥규 작가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무등문예창작연구회와 생오지 창작촌 동인 글한량 등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손 작가는 ‘사연을 쌓는 삶과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그는 소설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화(사연)들을 공개하며 독자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나고 가진 손 작가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소설을 왜 쓰는지, 창작에 입문하게 된 계기, 향후 작품 계획 등을 이야기했다.

정음 출신인 그는 “대학 시절 전국대학생문학연합 행사에 있을 때 곧잘 광주에 내려갔다”며 광주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손 작가는 초등, 중등은 정음에서 보내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진학했다.

선한 인상에 조곤조곤한 말씨는 겸손하고 예의바른 작가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답게 그의 말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편의 서사로 다가왔다. 그가 소설가가 되어야겠다고, 아니 평생 창작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게 한 단어는 바로 ‘아집잡다’.

‘아집잡다’는 말이 주는 울림 여전히 소설은 세상 기억하는 하나의 방식 정음 출신... 지난해 이상문학상 수상

“언젠가 도보여행을 하다가 버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장흥에서 강진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어느 정류장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버스를 탔는데, 저쪽 마을 어귀에서 허리가 구부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사한테 조금 기다려 달라는 신호였지요. 버스 가까이 왔을 때 보니 팔을 계속 짓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꽤 긴 시간이 흘러 다들 짜증을 낼 만도 한데 누구 하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다.” 그렇게 버스에 오른 할머니가 차에 오르자 “기다려주세요 아집잡소”라는 말을 했다. 가까이 차를 기다려준 데 대한 답례로 할머니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는 의미의 말을 건넸다.

손 작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저마다 특정한 말에는 나름의 삶과 사연이 담겨 있다고. 그 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더라도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오늘의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소설은 일종의 세상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와 인연을 작품으로 형상화 하는 것이 창작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는 실패한 상실감, 과



최근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손흥규 작가가 강연을 하는 모습. <무등문예창작연구회 제공>

거의 어둠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증편이라는 양식에 주목해 장편이 추구하는 서사의 시대성과 역사성, 단편이 강조하는 상황성을 절묘하게 조합했다”고 평했다.

손 작가는 2018년 제42회 이상문학상 작품집(문학사상)에 실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소설의 가치, 미학과도 연계된 말이다.

“사실 나는 절망을 말하고 싶다. 절망한 사람을 말하고 싶다. 절망한 사람 가운데 정말 절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싶다. (중략) 나는 타인들 역시 무엇을 잃었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손 하나를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 팔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보였다고 다리가 없거나 허리가 없거나 머리가 없는 사람도 보게 되었다. 누구나 무언가 하나씩은 잃고 사는 것 같았다.”

손 작가는 소설이 당장은 사람들의 소통에서 큰 기여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외롭거나 자신만의 시간에 빠져 있을 때는 소설을 찾게 된다고 했다. 그 때문에 작가는 항상 글을 써야 작가라고 부른다고.

“소설을 생각하고 쓰고 있으면 현실적이고 변질된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뭔가 잡다한 생각을 하면 작가는 ‘타락하기’ 마련이죠. 견디고 사는 것 그것이 창작의 세계에 입문한 이들이 지향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2002년 2월 대학(동국대) 졸업식 전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음날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고, 등단했다고 했더니 “축하한다. 월급은 얼마냐”고 물었다며 웃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왔다.

“소설을 쓰는 이유가 각자 있을 텐데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쪽이 훨씬 독자들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손 작가는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장편 ‘귀신의 시대’, ‘이슬람 정육점’, 소설집 ‘사람의 신화’, ‘그 남자의 가솔’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日 제국주의 비판하고 조선인과 교류 일본 진보적 양심작가 사진집 출간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마쓰다 도키코...’ 번역 출간



일제강점기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인과 인간적으로 교류한 일본 양심작가의 사진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국경, 성별, 연령을 넘어 일본 인권운동을 글과 삶으로 증언한 마쓰다 도키코(1905-2004)가 주인공.

전남과학대 김정훈 교수는 최근 사진집 ‘마쓰다 도키코 사진으로 보는 사랑과 투쟁의 99년’ (소명출판)을 번역 출간했다. 이 사진집은 마쓰다의 반전평화의 뜻과 평화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인 ‘마쓰다 도키코회’가 편집, 제작했다.

사진집은 마쓰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작가의 탄생부터 성장과정, 학창시절,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평론과 함께 작가상을 사진으로 수록한 소개서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에서 터부시한 조선인과 교류하며 조선의 가치를 존중한 마쓰다의 새로운 에세이도 발굴했다. 해방 직후 조선인 정용자 김일수와 함께 일본 내에서 중국인 희생자 유골송환과 유골 분국 송환을 위해 한중일 서민연대를 이끌고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그의 해방전의 기록이 새롭게 나온 것이다.

에세이는 작가 자신이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인간적으로 교류한 체험담을 1938

년 ‘월간 러시아’ 9월호에 ‘외국인과 관련한 수상(隨想)’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 이 단편 에세이는 지난 달 29일 마쓰다 도키코사

후 15주년을 기념하는 김 교수의 초청강연회에서 사회를 본 마쓰다 도키코 연구자인 에자키 준(江崎準) 씨가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조선, 조선인을 그린 마쓰다 도키코의 주요 작품, 문장’이라는 참고자료에 수록돼 있다.

김 교수가 해독한 ‘외국인과 관련한 수상’의 내용에 따르면 마쓰다 도키코는 1926년 21세 때 상경 후 도쿄 간다(神田)의 N영여학원을 다니며 박영생(朴永生)이라는 조선인 여성과 교류한다. 여기에는 마쓰다가 조선의 문화 가치를 존중하고 조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교수는 “마쓰다 만큼 조선인의 내면을 잘 이해한 작가는 드물다. 물론 해방 전부터 조선인과 사귀며 인간적인 교류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애환에 대한 동정과 배려의 인간애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자인 이노베이션스튜디오 전경.

## 전남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스튜디오 개관

전남대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문화예술융합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전남대 디자인학과는 AI융합대학 1층에 ‘융합콘텐츠스튜디오’와 ‘영상미디어스튜디오’ 실습공간을 갖춘 176.4㎡ 크기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융합콘텐츠 스튜디오’는 융합콘텐츠 실습·제작을 위한 대형스튜디오로, VFX에 사용되는 트래킹과 스크린합성, AR/

VR 가상콘텐츠 제작, 3D프린팅 출력 등 각종 미디어콘텐츠를 실습하며 체험이 가능하다.

‘영상미디어 스튜디오’에는 촬영용 캠코더 및 카메라, 포토 월, 크로마키스크린 등 실내 특수영상 촬영 장비를 갖춰 영상 애니메이션디자인, 미디어융합콘텐츠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등 다양한 융합 전공 교과목 실습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준비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군 12일 금호아트홀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군이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 동문회가 후원한다.

윤 씨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준비했다. ‘제1번 사장조 작품78’, ‘제2번 가장조 작품100’, ‘제3번 라단조 작

품108’을 들려준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는 바이올린 소나타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브람스는 바이올린 소나타 첫 곡을 스무살에 완성했지만 오랫동안 가다듬다가 사십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발표했다. 그만큼 정제된 아름다움과 짙은 호소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무대에는 광주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세종대에 출강 중인 피아니스트 이

철민이 함께 오른다.

윤 씨는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공부했으며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졸업한 후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악장 등으로 활동했다.

국립목포대, 세한대, 전남예고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광주챔버오케스트라 리더로 활동 중이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